

# 지스트, '2023 외국인 한국퀴즈대회' 개최

- 19일(금), 외국인 구성원 대상 퀴즈대회 개최로 한국문화 학습의 장 열어



▲ 지스트 한국퀴즈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구성원들이 박지용 대외협력처장 (맨 왼쪽, 기획처장 검무)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직무대행 박래길)가 '2023 외국인 한국퀴즈대회(2023 How much do you know about KOREA)' 행사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지스트에 소속된 외국인 구성원들이 모여 한국에 대한 문제를 푸는 퀴즈대회로, 202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케냐, 카자흐스탄, 인도, 파키스탄 등 12개국 출신의 외국인 구성원이 참여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 교류의 장을 가졌다.

대회는 한국사, 한국어, 한국 예절, 한국 문화, 한국 음식에 대한 문제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각종 문화재의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듣는 등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구성진 가락이 돋보이는 판소리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큰 호응을 보였다.

한국인 못지않게 한국 문화를 잘 아는 참가자들은 열띤 경쟁을 펼쳤다. 50문항의 퀴즈가 출제됐지만 막상막하의 실력 때문에 승부가 나지 않았고 추가 퀴즈로 우승자가 가려졌다.

지스트 박지용 대외협력처장(기획처장 겸무)은 “‘한국’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지스트 외국인 구성원들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우정을 나눌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 행사를 통해 외국인 구성원들이 한국과 더 친숙해져서 한국인 구성원과의 유대 관계도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